# 미국 경제지표 회복신호 등장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2012년 1월 주택시장지수가 2007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2011년 4/4분기 주택착공 실적도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.

- 전미주택건설협회(NAHB)는 2012년 1월 주택시장지수가 2년 6개월 내 가장 높은 25를 기록했다고 발표함.
- 주택건설업자들의 경기판단을 나타내는 주택시장지수는 주택시장 침체로 그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으나, 2011년 11월 이후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주택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이 확산됨.
- 미 상무부는 2011년 12월 주택착공 실적이 전월대비 4.1%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으나, 4/4분기 전체 주택착공 실적은 연율 기준 29.7% 증가한 것으로 기록됨.

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08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, 대형은행의 소매 대출도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경기회복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남.

- 미 노동부는 1월 둘째 주 기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2,000건으로 2008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으며, 이는 아직 실업률을 하락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됨.
- 한편, 씨티은행은 뉴욕지역의 개인 및 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면서 2011년 소매대출이 전년대비 15%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, 웰스 파고 은행도 상업대출이 전년대비 11% 증가했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 대형은행의 대출이 증가세를 나타냄.
- 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출, 자동차 대출, 학자금 대출 등 11월 가계대출이 계절조정 연율 기준 9.9% 증가했으며, 최근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개인과 기업이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(Wall Street Journal, 1/18)